

봄철은 구충의 계절

- 기생충 검사와
투약을 합시다



이 준 상

세계적으로 사람에게 기생된 기생충은 400종을 웃돌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으로부터 검출, 보고된 기생충만 해도 50종을 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생충 감염율은 낮고 자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외국의 자료와 비교하면 아직도 높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기생충 감염율을 0%까지 저하시키기 위해서는 과거 기생충관리때 보다 더욱 어렵다는 것을 여러 선진국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람에게 감염된 기생충은 다소를 불문하고 여러가지 모양으로 피해를 준다. 이들은 생물학적 특징을 근거로 선충류, 흡충류, 조충류, 원충류 및 곤충류 등으로 분류되며 사람에게 흡아오는 양식에 따라 토양매개성 기생충, 접촉매개성 기생충, 절족동물매개성 기생충, 패류 매개성 기생충 및 식용동물매개성 기생충 등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봄철과 밀접한 기생충은 토양매개성 기생충인 회충, 편충, 십이지장충, 동양모양선충 및 분선충 등 주로 선충류가 해당된다고 본다.

우리나라 형편상 감염율이 높고 피해가 으뜸이면서 고질적인 위치를 차지한 기생충은 회충일 것이다. 회충 감염율은 과거에 아주 높았으며 1986년에는 2.1%에 이르러 현저하게 저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농촌이 도시보다 높고, 지역에 따라서는 아주 높은 지역도 있어 선진국과 비교할 때 낮부끄러움을 금할 길 없다. 편충은 회충감염율보다 더 높고 지역

에 따른 분포양상은 회충과 비슷한 실정이다.

이들 기생충은 주로 채소나 과일 또는 흙을 매개체로 사람의 입을 통하여 감염되는데 감염된 기생충은 발육단계부터 우리 몸에 손상을 주면서 성숙된다. 기생충은 보다 많은 피해를 입히면서 충란을 대변속에 산란한다.

특히 농촌에서 충란이 있는 대변을 아무런 처치없이 채소밭에 뿌리거나 뒤버무려 거름으로 사용할 경우 채소나 과일이 충란으로 오염된다. 채소나 과일을 물로 잘 씻으면 충란이 떨어지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충란이 활개를 치면서 우리 몸에 들어 오게 된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성세제를 과신하지 말라는 것이다. 물론 같은 회수일 때, 물보다 중성세제가 나을지 모르지만 너무 믿어 물이면 여러번 씻을 것을 중성세제는 한두번 씻을 경우 더더욱 나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말이다.

최근까지 조사된 채소류의 기생충오염율을 보면 파, 배추, 무우, 열무, 상치, 오이 등은 각종 기생충의 충란이나 유충으로 높게 오염되었으며, 미나리, 당근, 딸기 등도 드물지 않게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국민의 월별 회충감염율을 조사분석하면 해마다 두번의 높은 곡선을 보이는 특이한 계절적 변동이 인정되었다.

아주 높은 곡선은 2~3월이며 그다음 곡선은 8~9월인데, 이때 감염율이 평소때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충감염후

성충이 충란을 산출하기 까지 2~3개월의 발육 기간이 필요하다면 거슬러 올라간 전 년도의 11~12월경에 회충란을 먹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김장김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김장김치에 소요되는 여러가지 채소가 높은 울로 각종 기생충란에 오염되어 있다면 추정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예로부터 경험하여 오고 또 답습하여 온 김장철의 여러가지 비위생적인 식습성을 고려한다면 봄철에 기생충감염율이 높은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높은 감염율의 출현은 감염시기와 원인을 추정케 하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구충을 위한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오늘날까지 「봄철은 구충의 계절」이란 구호아래 구충작업이 전개되어온 이유가 되겠다. 또 회충은 유충일때 구충제의





기생충 검사를 실시할 때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기생충, 예를들면 간흡충 같은 무서운 기생충란이 발견될 수 있는 부가적 가치와 의의가 수반되기도 한다.

효과가 적으므로 효과가 가장 클 때인 성충때 즉 봄철에 구충제를 복용함이 또 다른 이유가 되겠다.

회충암놈 1마리가 매일 배출하는 충란수는 200,000개이므로 5마리 정도의 암놈을 가진 사람은 하루에 1,000,000개의 충란을 외계로 보내기 때문에 결국 다른사람에게 까지 회충감염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임상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발육이 왕성한 시기의 어린이인 경우 성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성인에게서도 회충이 정상 기생부위인 소장엔 머물러 있을때 영양분을 빼앗아 가고 간혹, 담도, 간, 충수돌기라든가 뇌에 들어간 예가 있기 때문에 더욱 위

험한 증상을 초래하게 된다.

구충제를 쓸때 효과가 좋고 되도록이면 여러 종류의 기생충에 동시에 작용할 수 있으며 복용이 간편하고 값이 싸면서도 부작용이 없어 임신부나 어린이나 또는 노약자나 병약자들도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몰라도 어떤 구충제이든 이러한 조건을 완비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영양제는 아니므로 구충하기 전에 대변으로 기생충검사를 실시하여 만일 어떤 기생충에 감염되었다면 그에 맞는 약을 씹어 옳다고 본다.

현재까지 나온 구충약들이 부작용에 있어서 경미하다고는 하나 전연 부작용이 없는 약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대변검사를 실시할때 생각하지도 않았던 다른 기생충 예를들면 간흡충같은 무서운 기생충란이 발견될 수 있는 부가적 가치와 의의가 수반되기도 한다.

끝으로 요즘은 문제 기생충인 요충의 검사와 치료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요충은 대변검사로 충란이 검출되지 않으므로 항문주위도말검사법으로 검사해야 충란을 찾을 수 있고, 치료에 있어서 가족전원이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집단구충을 해야 한다. 이와동시에 보건관리를 철저히 보살펴 주어야 한다. 즉 식사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또 손톱을 짧게 깎아 주어야 기생충을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감염이 확인되면 구충제 복용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필자=고려의대교수>